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 MICE 산업

박희석 연구위원 · hspark@sdi.re.kr

한진아 연구원 · cycle13@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서울경제분석팀

I. MICE 산업 개요

II. 국내 및 서울의 MICE 산업 현황

III. 해외 MICE 산업 현황

IV. 서울 MICE산업의 시사점

- 생생리포트에서는 연속기획으로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며, 그 두 번째 시리즈로 서울의 MICE 산업을 선정

- 2009년 정부에서는 MICE 산업을 17개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서울 역시 MICE 산업을 8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채택하여 MICE 산업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의 2010년 국제회의 통계발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8위로 464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 11위(347건)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별 개최현황 중 서울은 5위로 201건을 개최하였으며, 부산이 17위로 93건, 제주가 27위로 67건 개최한 것으로 조사됨
- 서울은 현재 수도로서 도시 브랜드 뿐 만아니라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타 도시에 비해 강점을 지니고 있음
 - 2015년까지 코엑스 증축 및 신설 컨벤션 센터 2개 설립될 예정이며, 향후 경기도 SETEC과의 연계방안도 모색할 예정
- 각국의 MICE산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서울의 MICE 및 관련 산업 인프라 활용하여 국내 뿐 아니라 국외 MICE 산업 중심지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
 - 2010년 아시아 지역 중 싱가포르는 725건을 개최하여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탄탄한 MICE산업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모션 마련 등으로 얻어진 결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인 MICE 산업의 꾸준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 MICE산업의 현황과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I. MICE 산업 개요

- MICE는 호주 및 싱가포르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산업 정책적 개념으로 이론적으로 명확히 합의된 바는 없으나 비슷한 개념의 용어를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 약칭임
- MICE는 1990년대 중반부터 산업적으로 받아들여진 개념으로 국제기관, 협회 등이 정보 교류 및 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와 비즈니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의
- MICE는 M(Meeting), I(Incentives), C(Conventions), E(Exhibition)로 이를 나타내는 서비스 분야를 통칭하는 용어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 MICE산업의 대상별 의미

구분	의미	비고
Meeting	기업업무와 관련한 외부회의	임원회의, 세미나 등
Incentive	직원 및 관계업체에게 동기부여와 보상을 위한 여행	영업 우수자의 표창 등
Convention	국제단체, 학회, 협회가 주최하는 총회, 학술회의	G20, APEC 등
Exhibition	전문 전시 주최자의 전시회	부산 국제영화제, 서울 모터쇼 등

- MICE 산업은 회의, 전시, 여행, 숙박, 식음료, 오락, 문화 등 산업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체재기간과 소비수준이 높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큼
- 한국관광공사의 2009년 자료에 의하면 국제회의 참가자의 지출액은 일반 관광객 지출액의 약 2.4배 수준임
- 항공료를 포함하지 않은 국제회의 참가자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488달러, 외래 방문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444백만원임

- 또한 사회, 문화, 관광 등 다양하고 폭넓은 파급효과를 나타내는데 세부적으로 MICE 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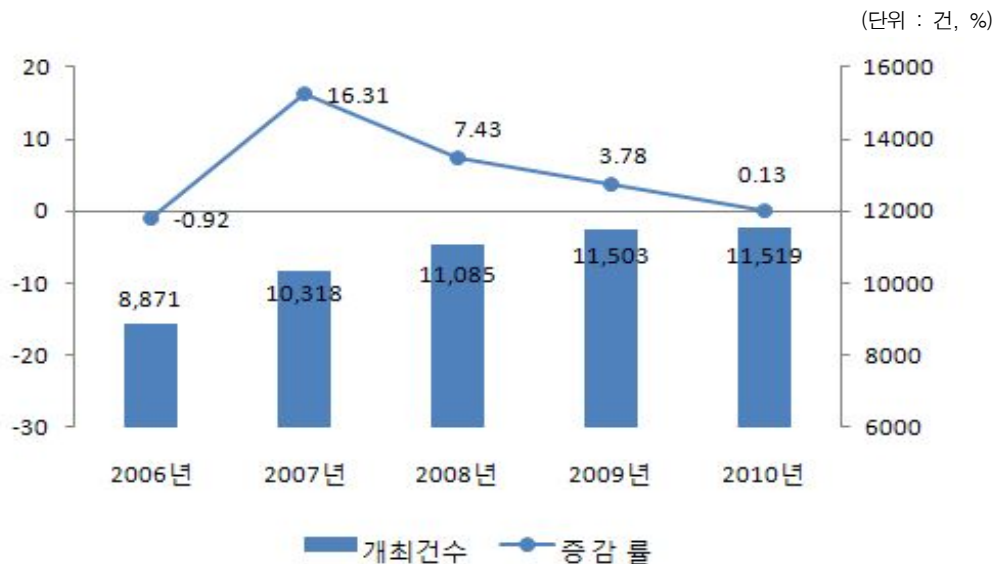
〈표 2〉 MICE산업의 파급효과

구분	파급효과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 관광객 유치 · 관광 비수기 타개 가능 · 관광관련 산업의 활성화 · 관광홍보 확대
사회,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문화 홍보효과 · MICE 개최자 지역민의 국제적 마인드 고취 · 인프라 확충 및 도시 환경개선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 및 경제기반 강화 · 생산유발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국제회의컨벤션 경쟁력 강화방안(2007)

- MICE산업의 파급효과 중 관광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로는 해당 도시의 관광산업 규모를 키우는 기회로 관광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또한 MICE 개최시기 조정으로 관광시장의 비수기를 극복할 수 있는 등의 효과 발생
- 사회,문화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민간차원의 국제적 교류가 가능하며 참가자와 시민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민의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시킴. 그 외 관련 시설(관광, 숙박) 확충 및 도시 재정비 등 사회 기반 시설이 확충으로 도시 환경 개선
- 경제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뿐 아니라, 종합서비스 산업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승수 효과가 커 개최도시의 소득향상 및 고용효과 등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 함
- 2009년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국제회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UIA에 의하면 2011년에 발표된 2010년 국제회의는 총 1만 1,519건으로 2009년에 비해 0.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주요국 개최순위를 보면, 미국이 936건을 개최하여 1위를 나타냈으며, 일본이 741건으로 2위, 싱가포르가 725건, 프랑스가 686건으로 각각 3,4위를 기록
- 최근 10년간 아시아의 경우 85.4% 성장하고 있어 아시아 국가의 향후 성장세도 기대되고 있음
- 그 중 일본, 싱가포르, 한국이 아시아지역 국제회의의 3대 강국으로 조사되었으며, 10대 국제회의의 개최국 내에 순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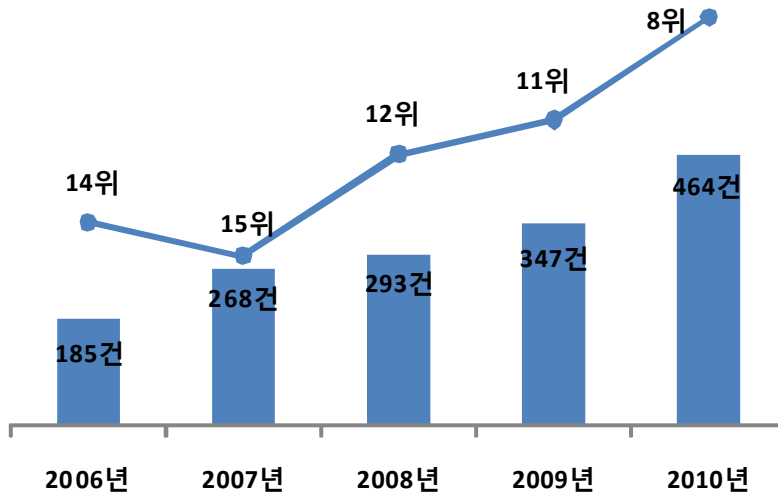
자료: UIA

[그림 1] 연도별 세계 국제회의의 개최건수 및 증감률

II. 국내 및 서울의 MICE 산업 현황

1. 국내 MICE 산업

- 2010년 한국은 총 464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33.7%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세계 순위 역시 3단계 상승한 8위를 차지함으로써, 해마다 개최 건수 및 순위 면에서 기록을 갱신
- 국내 도시별 개최현황은 서울(세계 5위, 아시아 2위) 201건, 부산(세계 17위, 아시아 4위) 93건, 제주(세계 27위, 아시아 7위) 67건을 개최



자료: UIA

[그림 2] 한국 MICE 개최 현황(2006~2010)

- 2009년 지식경제부는 MICE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갈 '17대 신성장동력산업'에 MICE산업을 포함시켜 육성·지원하고 있음
 - 특히 MICE 산업을 대규모 외국인이 참여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규정하고 2013년 세계 10위, 아시아 1위의 MICE 개최 국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MICE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개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추세

- 국내 MICE산업 관련 시설은 9개의 컨벤션센터와 3개의 전시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이 그 중 가장 많은 전문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건립 예정은 제외)
- 서울은 향후 2020년까지 세계 5대 도시 수준의 MICE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5년까지 코엑스 증축, DDP(동대문 디자인센터), 서울역 북부 컨벤션센터 건립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

〈표 3〉 국내 MICE시설 현황

(단위 : m²)

지역	회의시설	회의장 면적	전시장 면적	개관일
서울	aT Center	1,075	8,047	2002년
	Coex	18,404	36,027	1991년
	SETEC	839	9,313	1999년
	DDP	4,954	8,326	2013년 예정
	서울역 북부(가칭)	93,880		2015년 예정
부산	BEXCO	4,962	26,508	2001년
인천	송도컨벤시아	4,175	8,426	2008년
고양	KINTEC	6,301	53,541	2005년
대전	DCC	7,382	2,520	2008년
	대전 무역전시관	216	11,950	1995년
광주	KDJ Center	2,308	9,072	2005년
제주	ICC Jeju	7,009	7,940	2003년
창원	CECO	2,946	10,627	2005년
대구	EXCO	5,930	11,616	2001년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개최현황(2010)

2. 서울의 MICE 산업

- 2010년 서울의 MICE 개최건수는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로 2010년에는 201건을 개최하여 도시별 5위, 아시아 도시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음
- 2007년 121건을 개최하며 10위권에 진입을 시작으로, 2010년 도시별 개최 순위 5위로 Top 5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표 4〉 서울 국제회의 개최건수

(단위 : 건)

	2007	2008	2009	2010
서울	121건 (9위)	125건 (7위)	151건 (9위)	201건 (5위)

자료: 2010년 UIA 국제회의 통계발표(2007~2010)

○ 서울시의 경우 ‘세계 5대 컨벤션 도시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과를 중심으로 MICE산업의 전반적인 정책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

- 서울 대표 전시회 육성 및 컨벤션을 유치할 계획이며, MICE 최적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 민·관 유기적인 유치협력을 위해 "SEOUL MICE Alliance"를 활성화 하는 등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던 서울 컨벤션뷰로를 서울관광마케팅(주) 내에 서울 컨벤션뷰로 본부로 이동하여 적극적 지원체계구축

〈표 5〉 서울시 MICE산업 지원정책

구분	세부내용
MICE 복합지구 개발 등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수준의 MICE 인프라 확충 · 국제적 규모의 신규시설 건립
서울대표 MICE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표 컨벤션 유치 · 서울대표 전시회 육성
MICE 최적지 서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가 밀집한 유럽 및 다국적기업 아시아본부가 밀집한 아태지역 대상으로 홍보 · 해외 컨벤션 도시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MICE 연계 관광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E 참가자를 위한 다국어 안내브로셔 발간 · 타 도시 연계 코스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SEOUL MICE Alliance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E 관련 47개 협력체제 확대 · 협력 기관들의 공동 해외 마케팅 활동

- 아시아 MICE산업의 주요 도시인 싱가포르, 도쿄, 홍콩, 서울, 베이징 5개 도시를 중심으로 MICE산업의 상대적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 싱가포르는 4개의 경쟁력 비교 항목 중 회의전시시설, 접근성은 숙박시설 및 관광물가는 베이징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 4개의 항목 전반에서 4,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회의전시시설이 부족하고 관광물가가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 주변 도시 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MICE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및 국제회의 유치에 위한 다양한 지원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6〉 아시아 5개 도시의 MICE산업 경쟁력 비교

	회의전시시설	숙박시설	관광물가	접근성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컨벤션 시설 · 호텔컨벤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수/객실수 · 체인 호텔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비 · 교통료 · Big Mac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공항 거리 · 항공사 수 · 항공편수
도시순위	싱가포르	베이징	베이징	싱가포르
	도쿄	도쿄	싱가포르	홍콩
	홍콩	싱가포르	홍콩	도쿄
	서울	홍콩	서울	베이징
	베이징	서울	도쿄	서울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 서울시 국제회의·컨벤션 경쟁력 강화방안

III. 해외 MICE 산업 현황

1. 싱가포르

- 다국적 기업의 진출과 다양한 문화, 꾸준한 관광 인프라 구축 등으로 MICE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여 2010년 725건 개최하여 국가별 개최 3위, 아시아 국가 중 1위 차지
- 싱가포르는 정부의 정책으로 각종 MICE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정책제도를 구축하여 공격적인 투자를 실시하고 있음
 - ‘Business Event in Singapore’ 캠페인을 실시하고 5년간(2006~2011년) 1억 700만 싱가포르 달러 투자
 - 400개 이상의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단체에는 30%이상의 재정지원과 환영행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
-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 센토사 섬 및 마리나베이 등에 멀티컴플렉스 회의시설을 확충하여 탄탄한 MICE산업 인프라를 구축
 -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 남부에 49만 m^2 규모로 카지노, 컨벤션센터와 호텔, 해양생태공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조성되어 국제회의 개최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
 - 마리나 만에는 컨벤션과 카지노 시설을 갖춘 복합 리조트 마리나베이 샌즈가 건립되어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그림 3]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전경

2. 일본

- 일본은 MICE 유치 국가 중 두번째로 2010년 741건을 개최하여 미국 다음으로 국제회의를 가장 많이 개최하는 국가로 조사됨
- 일본 관광청은 MICE산업 육성을 위하여 ‘MICE 추진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국제회의 유치에 주력하고 있음
- ‘MICE 추진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2010년을 ‘Japan MICE Year’로 정하고 국·내외 대상으로 대규모 프로모션을 비롯하여 인프라 정비,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지원 및 인재육성, 법률 제도 정비 등을 추진
- 그 외 2011년 2월에는 ‘MICE 연구소’를 설립하여 일본 MICE 산업의 실태조사와 정부차원의 경제효과 파악, 새로운 상품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MICE사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홍콩

- 홍콩정부관광국(HKTB)은 2011년에 숙박을 포함하는 MICE 유치자 수를 전년대비 12% 증가한 160만 명으로 전망
- HKTB 내에 설립된 ‘미팅&엑시비전 홍콩(MEHK)’에서는 MICE 허브로서의 홍콩 이미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의 프로모션에는 4,770만 홍콩 달러(약 5억 5천만 엔)을 투자하고 그 중 70%를 일본을 포함한 10개 국외 마켓 시장에 투자할 방침
- 홍콩은 2011년 315건의 국제회의와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약 6,000명이 참가하는 ‘2011 SIGGRAPH’와 약 1만 2천 명 참가가 예상되는 치과관련 국제회의도 예정

IV. 서울 MICE 산업의 시사점

- MICE 산업은 관광산업과 비슷한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 산업들이 모여 전후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큰 산업임. 따라서, MICE 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련 산업들도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함
- 그러나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MICE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등 국제회의 유치경쟁에 치열하여 한해 개최되는 회의 건수에는 한계에 있음
- 서울의 8대 신성장동력산업인 MICE산업의 꾸준한 육성을 위해 SWOT 분석을 통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
- 서울의 경우 중앙정부 및 서울시 등이 MICE산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장점과 기회요인이 있는 반면, 해외 도시에 비해 관광지 매력이 부족하고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과 MICE산업 유치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약점 및 위협요인이 혼재하고 있음

〈표 7〉 서울 MICE 산업 SWOT 분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 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 컨벤션산업 인식 확대 · 메가이벤트 개최경험 지속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로의 매력 부족 · MICE 관련 대규모 인프라 부족 · 전문 컨벤션인력 부족 · 관광물가 높음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도시 서울로의 인식 강화 · MICE산업에 대한 시차원의 각종 지원 강화 ·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적 동 산업 육성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도시의 대규모 인프라 확충 · 지자체간 MICE 경쟁 심화 · 아시아 타 도시에 비해 도시 브랜드 미약

- 앞서 살펴본 싱가포르 사례와 서울 MICE산업 SWOT 분석을 통해 살펴 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가능

○ MICE 전문시설 확충 및 개선

- 대형 국제회의를 동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전문 국제회의 시설 확충 및 유지 보수필요
- 서울시는 현재 2015년까지 코엑스 시설 확충, DDP (2013년), 서울역 북부 컨벤션센터 (2015년 예정) 완공 예정으로 대규모 국제회의 시설 부족에 대한 갈증은 순차적으로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서울시 내 컨벤션센터들에 대한 연계방안에 대해 모색하여 대규모 MICE 산업의 효율적인 개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IT산업 기술을 MICE 전문시설에 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전문시설들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보완과 꾸준한 관리 방안 마련

○ MICE산업 도시, 서울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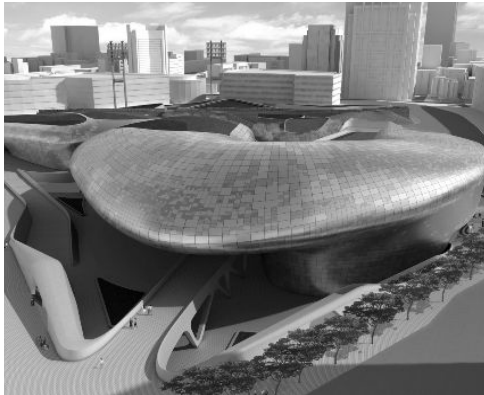
- 2010년 서울의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아시아 2위로 국제회의 개최 빈도가 높으나 관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에 비해 MICE산업도시 서울 이미지 홍보 및 마케팅이 부족
- 현재 국제회의 개최건수 1위인 싱가포르는 대규모 MICE 전문시설 뿐 아니라 관광관련 인프라가 풍부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다국적 문화의 도시라는 이미지로 국제회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서울시 2020년 마스터플랜에 따라 국제회의 개최건수 5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시설 확충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의 이미지 마케팅 전략이 필요

○ 다양한 문화 관광 프로그램 마련

- 국제회의는 대부분 1박 이상의 회의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최 기간 동안 회의 참가자들이 주변 관광지를 둘러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관광자원의 소개로 관광산업으로의 연계를 통한 지역 발전 효과 향상시키며, 개최 도시를 다른 나라에 소개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서울의 경우 수도로서 교통 및 식, 숙박 등 다양한 하드웨어가 고르게 제공이 가능하나 역사적 유물이나 독특한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다른 국가 또는 도시에 비해 부족한 현실로 타 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요구됨

참고문헌

- 금기용(2007), 서울시 국제회의컨벤션 경쟁력 강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홍식(2005), 경기도 MICE 산업 활성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장윤정(2009), 인천광역시 MICE 산업 경쟁력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주영민(2010), SERI 경제 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관광공사(2003~2009), 국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한국관광공사(2007~2010), 국제회의 개최현황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역 컨벤션센터